

之라 署名하고 「洪慎猷印」、「徽之」의 方印이 적혀 있다(畫帖 表裝의 크기는 三七·五cm x 二三·一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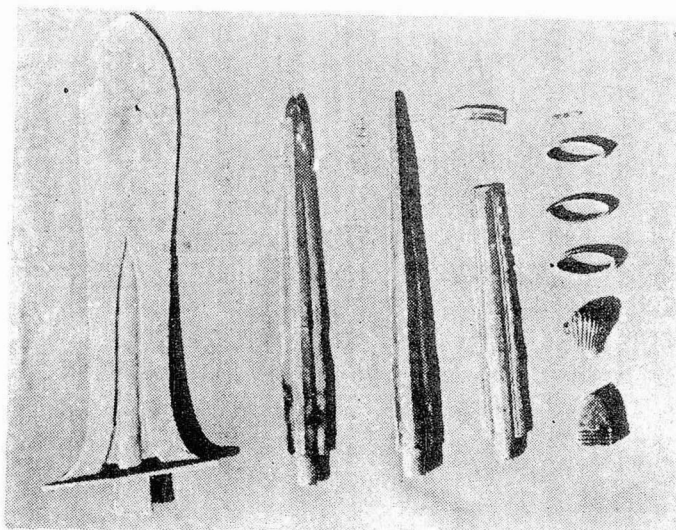
註

- ① 又峯 趙熙龍(二七九七—一八五九)의 著作이다. 又峯은 檀園의 子 畫員 金良暉와 交友關係가 있는 사람이다.
- ② 韓國美術文化史論叢 所收 一九六五 通文館
- ③ 弘濟全書 卷七 三十三葉에 「金弘道工於畫書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總事. 皆使弘道主人畫師. 例於歲初. 有帖畫應眞之規. 今年金弘道以應勿軒所註朱子詩. 畫爲八幅屏風. 深得聚星亭餘意. 既書原韻. 附寫和章. 以爲常目之資云爾」라 있다. 正祖王의 御製文集 弘濟全書를 完集印刊케 한 것은 己未(二七九九年)이었으니 이 해로부터 三十年을 곱아 올라가더라도 靈山外史의 記錄을 따르면 英祖庚寅(一七七〇)이 됨으로 當時 金弘道의 나이 十一歲 무렵이 된다.
- ④ 權域書畫徵 所收의 警修堂集에 보면 「御容畫師 李命基, 金弘道 涓人 李八龍, 寫賤照, 皆思不似, 翁覃溪, 囑汪載靑, 寫照行看子, 亦略彷彿東國衣冠而已, 曰靑失筆行看子 二李檀國貌不同」이라 있다. 이 記事內容의 年代에 對하여 的 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高俗燮 先生은 紫霞가 警修堂이라는 堂號를 쓰기 시작한 純祖十一年 辛未(一八一)前後의 일로 推定한 바 있다.
- ⑤ 「檀園先生의 繪畫」 新天地 一九五〇, 一, 二月號 서술신문사
- ⑥ ① 韓國의 人間像 第五卷 所收 一九六五年 新丘文化社
- ② 人物韓國史 第四卷 所收 一九六五年 博友社
- ⑦ 權域書畫徵에 引用된 金氏家譜 中에 「己酉又奉命擬往日本. 潛寫地圖. 至釜山遊疾不起. 壽四十八. 時金弘道年少隨行經理喪事, 獨往對馬島 寫其圖而還猷」이라 있다. 正祖己酉는 一七八九年이며 靈山外史生年대로 따르면 金弘道의 나이 三十되던 해가 된다.

大邱市 晚村洞出土 青銅遺物

尹 容 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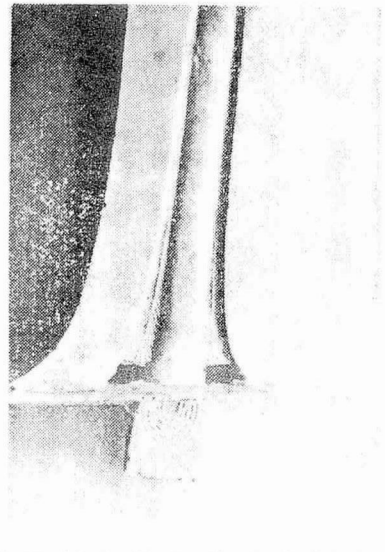
一九六六年 九月十一日 大邱市 東區 晚村洞 山의 五番地(現 東村遊園地 境內)에서 버스 駐車場 新說을 爲한 整地作業을 하다가 그곳의 丘陵傾斜地에서 偶然히 青銅器類를 發見하였다. 筆著는 이 消息을 發見되었던 다음 달 大邱市 教育委員會의 連絡으로 알게 되어 當日 現場을 踏查하였다. 踏查結果 이 미 그 一帶의 土層을 取土한 後였기에 當時作業에 關與한 車萬戶氏 및 朴時元氏에



前後 經緯를 물어서 記錄하였다. 이번 出土遺物 가운데는 國內初出의 中廣型 銅戈가 伴出되어 注目을 끌었다. 當時 見聞했던 바를 簡單히 紹介하여 資料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I. 出土地의 景 觀 및 出土狀況

大邱에서 慶州로 가는 街道를 따라 가면 大邱北部郊外에 흐르는 琴湖江에 이른다. 이곳 橋梁은 娥洋橋라 불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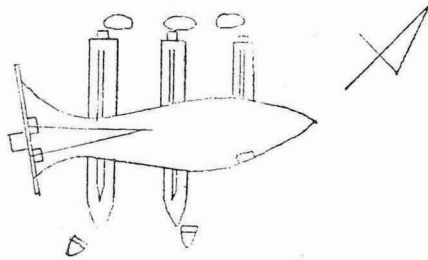


며 遺物出土地는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江邊을 따라 上流
쪽으로 約一km 올라
간 東村遊園地境內
이다. 이 곳은 琴湖
江南岸에 連立된 丘
陵가운데 丘陵과 丘
陵사이에서 形成된 한
侵蝕谷이다. 江邊은
넓은 砂場을 이루어
遊園地로 使用되고

侵蝕谷은 완만한 傾斜를 이루어 많은 遊興施設을 設置하고 있다 江邊砂
場에서 約二〇〇m 올라가면 新設된 駐車場이 나신다. 이 駐車場은 大
邱市內에서 孝陸洞行 버스의 終點으로 最近 마련한 것이며 遺物出土
地點은 바로 駐車場西便의 傾斜地에 자리잡고 있는 車萬戶氏宅 南쪽 마
당 끝이다. 遺物은 平地를 만드려고 傾斜面을 파다가 地表下 八〇cm 지
點에서 出土하였다. 踏査할 때는 整地가 完了한 後였고 이미 岩盤이 露
出되어 遺構는 찾아 볼 길 없게 되어 있었다. 出土遺物을 埋藏한 丘陵의
頂上에 올라 서서 他遺蹟地와 關聯시켜 視野를 넓혀 보면 우선 江 건너
便에 不老洞古墳群이 있고 一·五km 下流에 江流를 가로가듯 突出丘陵을
形成한 곳에는 土城址와 石器時代의 遺物이 散在한다. 다시 더 내려가
면 石器 및 赤色土器가 散在하는 山格洞의 燕岩山과 砧山이 있다. 大邱
盆地를 貫流하여 흘러내리는 新川은 燕岩山과 砧山 사이를 지나 琴湖江
에 直角으로 流入한다. 新川流域에는 靑銅細形劍을 위치한 支石墓의 散
在로 이미 알려진 곳이다. 한편 八公山南麓의 分水를 모아 내려오는 河
川은 新川이 琴湖江과 合流하는 건너 쪽에서 流入한다. 몇 年前 西邊洞
山麓에서 發見되었다는 靑銅斧①는 이 河川을 二km 올라간 곳이다. 많
은 支流를 合流시켜가면서 西流하는 琴湖江은 大邱西部를 둘러싸고 있

는 臥龍山을 回流하여 洛東江에 合流하는데 이 臥龍山에서도 細形銅劍
類가 出土한 바 있다. ② 遊園地에서 上流쪽으로는 三km 지點의 梅田洞에
支石墓 古墳 土城址가 있고 더욱 올라가면 永川 琴湖面 魚隱洞 漢代遺
蹟이 있다. 以外도 琴湖江 및 그 支流流域에는 많은 先史遺蹟이 散在하
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번 發見의 遺蹟도 琴湖江流域에 散在發展한 先
史遺蹟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다.

出土地에 다시 돌아와서 遺物의 出土狀況을 본다면 (直接作業을 하였
고 遺物을 發見報告한 朴時元氏 및 車萬戶의 證言에 依據해서) 銅戈를
畝이 西南쪽으로 向하게 하여 水平으로 놓고 그 아랫쪽에 銅戈와는 直角
되게 銅劍 셋을 並行시켜 두었다. 銅劍의 莖은 모두 東西쪽으로 向하게
하였고 把緣金具 셋은 各劍의 莖部쪽에 두었고 金鞘尻金具와 頭狀金具는
그 反對쪽인 劍先端部에서 發見되었다 한다. 이 곳 地層을 보면 水成岩
의 丘陵岩塊에다 一m 未滿의 赤褐色土層이 그 위에 덮고 있다. 遺物의
出處는 岩塊와는 거의 接하는 地表下 八〇cm의 土層內에서 發見되었다 한
다. 取土作業中 埋藏되었던 곳이다. 그 周圍에서 土質의 變化라든가 施
設의 痕跡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筆者가 踏査했을 때는 埋藏된 位置에
서 二〇—五〇cm가량 더 傾斜地를 파들어간 뒤였기는 하나 그 곳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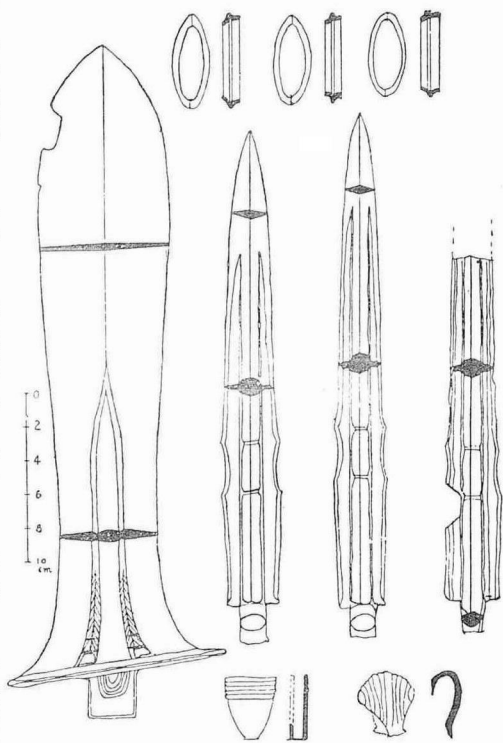


斷面上에 變化를 發見치 못하였다. 出
土狀況을 始終觀察 못한 뒤라서 確實
한 判斷이란 어려우나 以上の 證言과
踏査에서 얻는 結論으로서는 이 遺跡의
性格을 埋藏에 隨伴하는 副藏物이 아
니고 埋藏物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
다. 여기에서 遺物의 配列狀態를 보면
意義의 인 配列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I, 出土遺物

(A) 銅戈(不詳式銅劍)

中廣銅戈型 ③ 이라고 日本에서는



블리우는 種類의 것으로서 이는從來 우리나라에서 出土되었던 實用性의 銳利한 細長 및 中細銅戈型과는 달리 그 戈身의 斷面이 아주 얇은 扁菱形을 이루고 있고 戈身의 長과 幅이 甚히 增大하여 從來出土品에 비해 軟弱한 感覺을 주면서 巨大化하고 있다. 더욱이 戈身에는 날(刃)을 전혀 加研하지 않고 있어 武器로서의 使用性을 喪失한 器型이란 뜻에서 注目되는 바이다. 이는 利器가 갖는 性能으로 形態上으로 誇張시켰을 뿐 武器로써가 아닌 다른 目的에 使用된 器物이라 볼 수 있다. ④

이번 出土戈의 規格은 全長이 四〇・八cm이고 戈身만의 長은 三六・五cm이다. 鋒部의 最大幅은 七・八cm이고 아랫쪽 最狹幅은 六cm이다. 關部의 長은 一三・八cm이고 그 中央部分의 幅은 二cm이다. 또 莖部의 長은 一一・七cm이고 莖幅은 二・九cm이다. 形狀을 보면 戈身中央에 끝을 뾰족하게 한 鎬를 마련하고 그 兩側에는 樋를 마련하였다. 樋에는 根元에 二條의 橫線을 加한 細麗의 松葉文을 裝飾하였고 橫線下의 根部에는 柄을 着裝結紐하기 爲한 方形의 雙孔이 있다. 鎬와 樋, 그리고 松葉文의 모양을 볼 때 過去 出土品의 銅戈에서 느낄 수 있는 剛直하고도

銳利한 雙 및 稜角이 全혀 없고 區劃되지 않는 諸線刻이 柔弱 纖細하여 優美한 工藝化한 感覺을 주고 있다. 莖은 方形으로서 두께가 아주 얇다. 莖의 廣面에는 關과 接하여 重弧文이 裝飾되어 있다. 金屬質은 漢鏡細形 銅劍의 大部分에서 보는 鍊銅과 白銅은 아닐지라도 흔히 보는 粗雜質의 青銅類와는 달리 鍊銅의 靑銅이다. 腐蝕現象도 없고 表面도 잘 磨研되어 그 위에는 연한 白靑의 늑이 쉽게 덮혀 있다.

(B) 細形銅劍

全長은 三〇・八cm이고 莖長만은 一一・二cm이며 劍身最大幅은 (鎬下部 節帶部分에서) 三・五cm이다. 質은 白銅으로서 表面은 黑漆色의 늑이 全面을 덮고 있다. 身 中央에는 斷面이 六角形인 棒狀軸이 있어서 鎬를 이루고 있으며 그 兩側은 階段狀으로 두께를 얇게 하면서 끝에 가서 銳利한 刃部를 만들고 있다. 鎬가 없는 鋒部의 橫斷面은 扁菱形으로 磨研하여 끝을 銳利하게 하였다. 鎬에는 中間에서 基部쪽으로 약간 내려온 곳에 二條의 節帶를 만들어 두고 있으며 節帶사이에 位置하는 兩側刃部는 안으로 약간 曲線을 이루어 袂入하고 있다. 基部는 斷面이 橢圓인 굵직하고 짧은 莖이 있다. 刃部의 袂入 및 鎬의 節帶, 全體의 器形, 이러한 모든 特徵은 細形銅劍으로서의 典型的 樣式을 갖추고 있다.

(C) 細形銅劍

全長은 三〇・五cm이고 莖長만은 二cm이며 劍身 最大幅은 三・二cm이다. 形質은 前述한 銅劍과 거의 같으나 表面의 黑漆色 鏽에는 部分的으로 白靑斑이 있다.

(D) 細形銅劍

鋒部는 發見時에 缺失된 듯하다. 現長은 一一・二cm이고 莖長은 一・八cm이며 劍身 最大幅은 三・二cm이다. 鎬의 橫斷面이 六角形이란 것과 二條의 節帶가 鑄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刃部에 袂入이 있는 點이 이러한 것은 前述한 二個銅劍과 樣式上 同類 것으로 볼 수 있다. 鎬와 刃部사이에 是는 階段狀으로 얇아진 前者와는 달리 그 部分에다 血溝를 만들고 있다. 이는 黃州黑橋出土銅劍⑥과 같다.

(E) 劍鞘尻金具

二等邊三角形 모양을 한 金具로서 底邊쪽에 三條의 突帶를 새기고 幅面에 該當하는 側面에는 二條의 突帶를 들리고 있다. 底邊은 三·一 cm 高는 四 cm, 側面의 幅은 一 cm 이다. 質은 白銅으로서 表面은 黑漆色の 銹가 깨끗이 덮고 있다. 이러한 形類의 出土例는 大邱出土品 ⑥ 이라 傳해진 것에 도 있다.

(F) 頭狀金具

마치 後頭部의 毛髮을 模倣한 것처럼 縱으로 突線을 鑄出し켜 아랫쪽 頸에 該當하는 部分을 좁혀 毛髮을 모은 듯한 形狀을 하고 있으며 頭部 兩側面에는 眼球의 半球突出物이 있다. 突影가 새겨져 있는 面은 球狀으로 볼록하고 그 뒷面은 反對로 움푹 파여서 周緣部만 잘로 잘린듯 平平하게 磨研하였다. 뒷面은 마치 虎帶金具 ⑦ 의 뒷面과 같은 樣狀을 하고 있다. 用途는 알 수 없으나 細形銅劍의 鋒部쪽에서 發見되었다고 한다. 長은 四 cm 이고 最大幅은 三·四 cm 로서 잘린 周緣部를 除外하고는 黑漆色の 녹이 덮혀 있다.

(G) 把緣金具

扁橢圓形의 環으로서 黑漆色の 녹을 쓰고 있는 것과 白靑의 녹을 쓰고 있는 것이다. 모두 側面中央에 突帶를 一條씩 둘러두어 그것을 境界로 한 쪽은 環의 徑이 좁아진다. 크기는 長徑이 各各 五·六 cm, 五·四 cm, 五·二 cm 이다.

Ⅲ、結 論

이번 出土遺物 가운데 銅戈는 이러한 型의 것이 過去 西部日本地域에서 單 出土되었었고 韓半島에서는 初出이었다는데 極히 注目되는 바이다. 日本에서 지금까지 研究된 바로는 廣形銅器類와 細形銅器類 사이에 性格 및 時期에 많은 差異가 있음을 認定하고 있고 또한 廣形靑銅器類는 袒形이 細形靑銅器類에 있으며 細形靑銅器類는 韓半島에서 流入된 文化라 했다. 한편 廣形靑銅器類는 西部日本地域에서 特殊하게 發展된 二次的 文化라 했다. 廣形類는 實用性的의 細形類와 달리 日本의 銅鐸과 아울러 共同體

의 祭禮用器用으로 사용되고 細形보다 훨씬 後代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出土物과 關聯하여 몇 가지 생각되는 것은 韓半島에서 巨大한 器形의 量이 적었다는 點을 들어 巨大化의 過程이 日本에서 發端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南下한 細形銅利器類는 우리나라 南部半島地域에서 巨大化하는 器類와 한 때 共存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共存의 事實과 文化傳播上의 位置로 보아 巨大化의 發端은 韓半島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그것이 日本으로 波狀적으로 流入되어 간 것이라 본다. 韓半島에서의 社會는 北方의 보다 強力한 文化勢力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巨大化시킨 社會構造를 오래도록 持續시키지 못하고 곧 變質되어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廣形化하는 器物의 所有社會가 어떠한 性格의 것인지 또 그것이 半島에서 어떠한 時期에 어떤 用途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이에 따르는 諸般問題가 속히 研究되어 究明될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註

- ① 尹武柄·「大邱發見의 靑銅斧」考古美術 五卷七·八號
- ② 金良善·「多鈕幾何學紋鏡研究抄」合同論文集 一
- ③ 日本의 考古學 彌生時代 一九六六年 河出書房
- ④ 「日本의 考古學Ⅱ」彌生時代 一九六六 河出書房
- ⑤ 朝鮮古文化綜鑑 一卷
- ⑥ 金良善·「多鈕幾何學紋鏡研究抄」插二五圖合同論文集 一
- ⑦ 永川 魚隱洞出土 虎帶金具 等

高麗梵鐘의 新例 (其八)

黃 壽 永

戊戌銘 銅鐘

(1)

이 新鐘은 今年 九月 六日 全南 高興郡 浦頭面 松山里 山一三三番地 積石層속에서 同里居住 丁炳任氏에 의하여 發見되어서 埋藏物로 申生되